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대학생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조 윤 경

2018年 7月

대학생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도교수 남 진 열

조 윤 경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6월

조윤경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황 경 수 

위 원

김 상 리 

위 원

남 진 열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18년 6월

A study on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Human-rights Awareness and Self-consciousness
to Attitude toward the Disabled

Cho, Yun-Kyoung

(Supervised by Professor Nam, Chin-Yeol)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Welfare

2018.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Major in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 초록>

대학생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조 윤 경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지도교수 남진열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요인으로서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교육적 실천방안을 높이기 위한 제언이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대학생 426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도구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세 하위요인 염세주의-고정관념 10문항, 낙관주의-인권 3문항, 손상된 성격 2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인권의식 18문항, 자아존중감 10문항,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요인으로 10문항 총 5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에 사용된 분석방법은 신뢰도 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소별 수준은 염세주의-고정관념(3.59점), 낙관주의-인권(3.95점), 손상된 성격(3.36점)으로 나타나 대부분 보통이상의 평균 분포를 보이고 있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서 성별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친척장애인 중 장애인이 있을 때 친척 중 장애인이 없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권의식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인권의식은 장애인 및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수강 유무에서 수강경험이 '있다'가 '없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며, 가족 및 친척장애인 유무에서 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가 '없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권의식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아존중감은 경제적 수준을 '상'으로 느낄 때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인권교육 경험이 '있다'가 '없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냈다.

다섯째,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 중 염세주의-고정관념과 낙관주의-인권 요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손상된 성격 요인에서는 인권의식만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내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 함양에 도움이 되는 관련 수강과목이 전공 선택, 교양 선택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지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성별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손상된 성격)와 인권의식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을 구분해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인권의식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예컨대 가상 장애체험 활동교육 또는 장애인 시설 견학 및 봉사활동을 통해 장애인과 직·간접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접목된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는데 교육적 함의가 있을 것이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3
II. 이론적 배경	4
1. 종속변인 : 장애인에 대한 태도	4
2. 독립변인 :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	14
III. 연구방법	31
1. 연구모형	31
2. 연구가설	32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34
4. 연구변인	35
5. 분석방법	39
IV. 연구결과	40
1. 조사대상자의 특성	40
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	42
3.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43
4.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53
5.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5
6. 연구가설 검증 결과	59
V. 결론 및 제언	62
1. 연구결과 요약	62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65

참고문헌 67

<부록 1> 설문지 75

표 목 차

<표 1>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	12
<표 2> 인권의식에 관한 선행연구	22
<표 3> 자아존중감에 관한 선행연구	29
<표 4> 장애인에 대한 태도 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	36
<표 5> 인권의식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37
<표 6> 자아존중감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38
<표 7> 조사대상자의 특성	40
<표 8>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42
<표 9> 성별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분석	43
<표 10> 학년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분석	44
<표 11> 종교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분석	45
<표 12> 경제적 수준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분석	46
<표 13> 인권교육 경험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분석	47
<표 14> 장애인·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수강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분석	48
<표 15>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분석	49
<표 16> 가족장애인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분석	50
<표 17> 친척장애인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분석	51
<표 18> 친구장애인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분석	52
<표 19> 상관관계 분석	54
<표 20>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이 염세주의-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분석	55
<표 21>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이 낙관주의-인권에 미치는 영향분석	56
<표 22>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이 손상된 성격에 미치는 영향분석	57
<표 23>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58
<표 24>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결과	60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모형	31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장애인이 사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느냐는 사회가 어떻게 그들을 이해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장애인들의 능력이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장애 원인을 비과학적·미신적 선입견으로 장애인들은 관심의 대상도 되지 못한 채 편견과 차별이라는 이중적 고통을 겪어 왔다(김정임, 2003).

장애인에 대한 태도나 편견의 형성요인은 한 가지 사고방식 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시대적 사상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장애인이 가족 구성원일 때 부끄러워하며 이야기를 꺼리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김민정, 2012).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편견 없이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이 우선되어야 한다(이지수, 2004).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라면 장애인들은 실질적인 사회통합이 어렵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도 없어 행복한 삶 조차 느끼지 못한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장애 자녀를 둔 부모와 가족, 교사, 중·고·대학생이 주 연구대상이었으며, 최근에는 의료인, 치료사,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재활관련 전문가들로 이어지고 있다(노복순, 2017). 장애인에 대한 태도(인식, 수용, 관심, 사회적 거리감 등)와 관련한 그 동안의 연구를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특성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종교, 경제적 수준, 접촉의 유무, 가족·친인척, 자원봉사활동 등을 주요 변수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직접적이거나 혹은 간접적인 부분으로 상반된 연구결과도 보이고 있다.

김기홍(2002)은 지체장애인에 대한 독일과 한국 대학생들의 태도에 관한 비교 연구에서 독일 대학생에 비해 한국 대학생들은 지체 장애인에 대한 인지적 요소에서 정보와 지식이 매우 부족하였고, 감정적 요소는 부정적이었으며, 행동적 요

소는 거부적이거나 폐쇄적이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서 신체장애인이 정신장애인 보다 더 호의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최국환, 2003).

이처럼 다양한 연령과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는 대상 중에서도 특히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향후 사회통합과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과업이다.

최근 장애인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장애인을 시혜·동정 차원이 아닌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인권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학생들은 고교시절 입시를 목표로 하는 경쟁 위주의 문화에서 대학진학 이후에는 주체적 생활과 세계관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대학생활이 후기청소년의 개인의 인생관, 생활철학, 대인관계, 인권의식에 영향을 준다면 이 단계에서의 인권교육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임재홍, 2010). 청소년이 스스로 높은 인권의식을 가진다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실천을 위해 긍정적인 태도 형성과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졸업 후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시기로 자아존중감이야말로 사회적 성취에 중요한 요소이며, 대인관계에 긍정적이고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이미경, 2009). 미래의 책임감이 부여되는 대학생은 자신에 대한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을 인식하고 향상된다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된 선행연구는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의 변인연구(김혜정, 2002; 이수연·문용우, 2002; 하경희·강병철, 2009; 김자영, 2012, 김상미·남진열, 2014; 황동진·송혁·김사현, 2015; 현안나, 2016)와 자아존중감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연구(이지수, 2004; 이지수, 2005; 차현화·김현, 2008; 최길순, 2012)등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요인을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천방안을 높이기 위한 제언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인권의식,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대학생의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은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종속변인 : 장애인에 대한 태도

1) 태도의 개념 및 요소

(1) 태도의 개념

태도는 사람들이 대상에 대해 지니고 있는 마음의 자세, 양태로 G. Allport에 따르면 ‘태도란 태도 대상과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에 직접적이거나 역동적인 영향력을 주는 심적이고 생리적인 준비상태로서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라고 했다. 태도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인간의 마음을 지·정·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Olson & Zanna, 1993).

인지적 요소(知)는 태도 대상에 대해 갖는 모든 상념과 지식 등을 말하며, 그 특징은 복잡성과 수시로 변하는 변화성에 있다. 평가 또는 정서적 요소(情)는 태도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서 호의적 평가를 말하고 지속성을 특징으로 한다. 행동요소(意)는 태도대상과 관련하여 호의적, 혐오적으로 취하는 행동 등으로 태도가 행동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이 태도를 결정짓는 경우도 많다(한규석, 2013).

태도라는 개념은 개인의 사회적 행동의 차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는 의도에서 사용하게 된 용어(이승호, 2009)로 태도(attitude)는 사회에서 개인의 활동을 결정하는 의식과정으로 심리학적, 감정적, 평가적 측면으로 구분된다. 심리학적 측면을 강조한 Allport(1935)는 ‘태도란 어떤 대상물에 대하여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 양태로 일관성 있게 반응하도록 하는 학습된 잠재 요인이다’라고 하였다(유창숙, 2012).

Smith, Price & March(1986)는 태도란 특별한 사람, 집단, 이념, 사건 또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는 경향성으로 태도대상(attitude object)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된 신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태도는 대상을 가지며, 상황에 대한 개인 반응의 일치성을 통해 추론될 수 있다(김민수, 2001).

태도의 개념은 흔히 습관이나 가치, 의견 등의 개념과 함께 쓰이는 경향이 있으나 이들 개념은 서로 다르다. 습관은 태도와 마찬가지로 학습되고 지속성이 있으나 행동의 규칙적인 패턴을 말하고, 태도는 그 자체가 행동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치는 추구하는 목표와 이상을 뜻하고 여러 가지 태도들을 전체적으로 강조한다. 의견이란 어떤 대상에 대해 가지는 생각을 일컫는 말이며, 태도는 인지적 판단이 아닌 감정적 요소를 함축하는 분화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최연숙, 2013; 김지현, 2015).

(2) 태도의 요소

태도는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요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홍성운, 2002).

① 인지적 요소(cognitive component)

태도의 인지적 요소란 태도 대상물에 대한 개인들의 관념적인 지각에 관한 것으로 인식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사회적 인식을 이야기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 인지 도식이며, 타인들에 대한 기대감과 예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인지 도식에 맞추어 해석과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고, 장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지도식이 부정적인 것이면,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 많은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다.

② 감정적 요소(affective component)

감정적 요소는 태도 대상물에 대한 개인들의 좋고 나쁨이나 감정에 관한 태도적 측면으로 Himmelfab & Eagly(1974)에 따르면 ‘그 방향과 강도가 다양하게 변하는 감정적 요소는 태도의 핵심적인 측면이자 요소’라고 말했다. 이것은 ‘태도 대상물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감정적 요소가 결여된다면 태도의 인지적 요소는 태도가 될 수 없고 그 대신 신념이나 판단이 되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③ 행동적 요소(behavioral component)

태도의 행동적 요소는 태도 대상물에 어떠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것은 행동 그 자체가 아닌 행동을 하려는 경향으로서 태도적 측면을 지칭하는 것이다.

2) 장애인 인권 및 운동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과 장애인권은 인류 역사와 함께 변화해 왔으며, 신의 저주로 표현되던 장애인이 보편적 인간으로 진화해 온 과정을 장애인권 역사라고 할 수 있다.

(1) 서구 장애인권의 역사

① 고대

그리스·로마시대는 장애에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으로 장애인은 추한 인간으로 간주되고, 살아남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로마의 네로왕은 장애인을 활쏘기 연습의 표적으로 삼기도 했다. 플라톤은 쓸모 있고 이성적인 사람만 부양한다고 해서 장애인을 배척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청각장애인과 지적 장애인은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② 중세

중세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지배하는 사회로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을 하고 태어나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장애인은 ‘인류의 근원적 죄의 결과’이거나 악마와의 정사나 혼외정사의 결과로 태어난 ‘악마의 자손’으로 간주되었다.

③ 현대

가. 세계대전 이전

우생학 이론은 열악한 유전소질을 가진 장애 인구의 증가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장애인을 대량 학살하는데 앞장선 나치의 선전도구이기도 했다. 나치의

대량 살인과 생체 실험의 출발점이었던 암호명 ‘T4작전’은 1939년부터 준비된 말살 작전으로 독일 전국에서 “생존할 가치가 없는 존재”로 낙인찍힌 심신장애 인들을 6개 ‘안락사 시설’로 집결시킨 후 2년 동안에 7만 명 이상을 살해했고, 1940년에 나치는 패전까지 약 20만 명의 장애인을 일산화탄소로 살해했다.

나. 산업화와 세계대전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생산성이 낮은 장애인 가족의 일원은 가족에 부담이 되거나 사회적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 생산성이 낮은 빈민과 장애인들을 구빈원에 가두어 두고 근근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구호를 제공하였다. 두 차례 걸친 전쟁을 통해 많은 전상 장애인이 속출하여 국가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처우할 필요성이 제시되면서 근대적 의미의 장애인복지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세계대전 이후

서구에서 진행된 20세기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발전은 크게 세 가지의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1960년대까지 의료적 관점이 주도하는 시기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면서, 장애인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치료와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두 번째는 1970년대로 장애인이 성장·발전하며,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화된 훈련 서비스의 제공이 강조된 시기이다. 세 번째는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포함하는 단계로 지역사회에서의 통합, 자립, 삶의 질, 개별화 등을 위한 기능적 차원을 강조하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역사회 구성원이라는 관점을 강조하는 시기이다(유동철, 2009).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교육권과 주거권, 노동권, 정보접근권 등 많은 인권 침해와 차별을 경험한다. 장애인들이 학교 입학에 거부당하거나 어렵게 입학하더라도 괴롭힘과 차별을 많이 당하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일자리 구하기가 비장애인에 비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장애인들은 이런 현실의 변화를 위해 장애인의 인권 보장요구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5년에 걸친 운동 끝에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었다(크리스티네 솔추-라

이스·공현, 2010). 우리가 개인의 존엄성, 평등한 지위에 대한 생각을 시작한 것은 장애라는 장벽으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지라도 그들의 장애가 무엇이건 삶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조지 카텝, 201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하여 오랜 역사부터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릴 권리와 존재 자체로서 소중함을 소외 되었다. 물론 현재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자 대중매체 홍보, 학교 교과목 내용 수록 및 장애체험교육, 장애인 단체와 시설은 인권교육 연 2회(2시간 이상) 시설평가 항목 등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일상에서 만나는 주변의 장애인들에게 스스로 어떠한 태도로 임하는가와 관련해서 다음의 선행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학교를 입학하기 전 유치원 통합교육에 대한 연구, 초·중·고·대학생, 일반인,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연령 및 계층에서 연구가 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 맞는 대학생 범주를 확대하여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대상으로 '배경요인'의 설문지 표기 순서대로 선행연구를 정리·요약하였다.

① 성별

박은경(2005)은 성별에 따른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긍정적이고, 자원봉사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승호(2009)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장애인과 결혼에 대한 인식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장애인과 결혼 생활에 대한 태도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고창환(2009)의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생 398명을 대상으로 개인·사회적 상황에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장애인식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결혼에 대한 태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원석·조인수(2011)는 사회적 상황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대

한 대학생의 태도와 관련한 연구 결과에서 지적장애인의 직장생활과 만남에 대한 태도는 중립적 태도를 보였지만 결혼상황에 대해서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유창숙(2012)은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결과 성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거의 없었고, ‘행동적 태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처럼 성별에 따른 조사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경우보다 수용적인 결과가 많이 나왔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상관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류수경, 1992; 이승호, 2009).

방대혁(2013)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태도, 낙관-인권, 행동오해, 비관-절망 모든 항목에서 높은 태도를 가지고 있고, 특히 행동오해에서는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있었다고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장애인식이 긍정적인 이유로 여성은 수용적이고 모성애가 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심리적 방향으로 쉽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Griffin et al., 2012; 신가인 외, 2017). 이는 신가인 외(2017)의 대학생의 장애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장애인식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② 학년

유창숙(2012)은 학년이 낮을수록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 나타났다. 정태연 외(2008)는 초.중.고.대학생 간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서의 차이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학년 및 학교가 높아질수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더 부정적이었다.

신가인 외(2017)는 4학년이 장애인식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학년에 따른 차이는 연구 대상 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김정화 외(2014)는 간호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인식 및 관심에 관한 연구에서 3학년이 다른 학년보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③ 종교

박은경(2005)의 연구에서 종교유무에 따른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종교

가 있을수록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나 통계적 의미는 없다고 나타났다. 방대혁(2013)은 종교가 있는 대학생이 행동오해를 제외한 장애인에 대한 태도, 낙관-인권, 비관-절망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나타냈다. 김정화 외(2014)는 종교가 있는 학생이 종교가 없는 학생보다 장애인의 능력 제한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수지와 김정민(2008)은 대학생의 장애인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 종교에 따른 장애인의 태도에는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④ 가정의 주관적 경제적 수준

박은경(2005)의 연구에서 대체적으로 월평균 소득이 적을수록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지만 일관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김미옥(2003)의 사회복지 전공생의 자아개념과 거리감의 관련 분석결과 월수입이 적은 학생들이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을 가깝게 지각하고 있었다고 나타났다. 유창숙(2012)은 경제상태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관련 교과목 수강

이철원(2000)은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대학생이 수강하지 않는 학생보다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인 수용태도를 보였다. 박은경(2005)은 정인지체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송수지와 김정민(2008)은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수강하지 않는 학생보다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인 수용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호(2009)는 장애관련 수강 경험이 있는 경우가 수강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방대혁(2013)의 장애 및 특수교육관련 과목수강을 한 대학생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태도, 낙관-인권, 행동오해, 비관-절망 모든 항목에서 높은 태도점수 및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나타냈다. 김정화 외(2014)는 장애인에 대한 수업 경험 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자원봉사활동

박은경(2005)의 연구에서 정신지체장애인이 주변에 있어 빈번한 교류와 친분을 유지하거나 관련기관이나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즉, 초·중·고등학교 시절 자원봉사경험이 있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김정배(2002)는 비장애청소년들이 장애인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여 이전 부정적이고 중성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와, 장애인에 대한 간접적 접촉 보다는 직접적 접촉의 봉사활동이 긍정적인 태도변화를 가져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유창숙(2012)은 자원봉사의 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었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신가인 외(2017)의 연구에서는 장애인 관련기관에서 봉사경험이 있는 학생의 장애인식이 긍정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나타났다.

⑦ 가족·친척·친구

박은경(2005)의 연구에서는 부모, 형제, 친척이 장애인일 경우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이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승호(2009)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장애인과의 만남에 대한 태도, 결혼에 대한 인식, 직장생활에 대한 태도 관련 변인 간 관계 모두에서 장애친척이 있는 경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유창숙(2012)의 연구에서 가족·친척 중에 장애인이 있는 대학생이 장애인이 없는 대학생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가인 외(2017)의 연구에서도 가족이나 친척 중 장애인이 있는 간호 대학생이 친교의 거부에서 점수가 낮아 친족관계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연도순으로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결과 등을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결과
이철원 (2000)	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수용태도 연구	진주시 W대학교 (N=320)	교과목 수강 있음>없음
김정배 (200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제1회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대회 참가(N=42)	자원봉사 있음>없음
김미옥 (2003)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자아개념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서울시 4년제 대학 7개(N=400)	경제수준 낮음>높음
박은경 (2005)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연구-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경험 유무에 따른 비교	대구지역 5개 대학 (N=284)	남학생>여학생 경제수준 낮음>높음 교과목 수강 있음>없음 자원봉사 있음>없음
정태연 외 (2008)	초·중·고·대학생 간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서의 차이	서울 및 수도권 소재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초(96)·중(101)·고(63)·대학(119)	저학년 >고학년
송수지·김정민 (2008)	대학생의 장애인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 강원, 충청도 소재 대학 각 1곳 (N=335)	종교 유무 차이 없음 교과목 수강 있음>없음
이승호 (2009)	사회적 상황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관련 변인 간 관계 분석	제주도 4개 대학 (N=401)	남학생>여학생 교과목 수강 있음>없음
고창환 (2009)	개인·사회적 상황에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장애인식 연구	제주도 대학 (N=398)	남학생>여학생
오원석·조인수 (2011)	사회적 상황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대구, 경북, 제주도 4개 대학(N=516)	남학생 >여학생
유창숙 (2012)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대전, 충남지역 4개 대학(N=300)	남학생>여학생 저학년>고학년 경제수준 차이 없음 자원봉사 있음>없음
방대혁 (2013)	대학생의 인권의식과 사회적 책임성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 서울, 인천 지역 5개 곳 대학 (N=300)	남학생>여학생 종교 있음>없음 교과목 수강 있음>없음

연구자 (연도)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결과
김정화 외 (2014)	간호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인식 및 관심에 관한 연구	K대학 간호학과 (N=435)	3학년이 긍정적 종교 있음> 없음 교과목 수강 차이 없음
신가인 외 (2017)	대학생의 장애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 경기, 강원, 경상, 전라, 충청, 제주, 해외 거주 대학생 (N=1,957)	남학생>여학생 저학년>고학년 자원봉사 있음>없음

* 표는 연도순으로 작성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이승호(2009), 고창환(2009), 오원석과 조인수(2011)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전체 및 일부 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연구 도구로는 모두 Hergenrather와 Rhodes(2007)의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척도(Disability Social Relations Generalized Disability : DSRGD)의 장애인과 만남, 장애인과의 결혼생활, 장애인과의 직장생활 등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자는 Antonak(1981)이 개발한 SADP and ATDP-O의 염세주의-고정관념, 낙관주의-인권, 손상된 성격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학생을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수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2. 독립변수 :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

1) 인권의식

(1) 인권의식 개념

이 세상이 여전히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인권이라는 가치를 가슴에 품고 인권을 위한 고민과 노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된다(김녕, 2013).

인권(Human Rights)이란 전통적으로 ‘자연권(Natural Rights)’, 또는 ‘인간의 권리(Rights of Man)’라고 알려진 것이 20세기이며, 인권문제에 대해 철학자 존 로크는 생명과 자유와 재산에 대한 권리라고 했다. 그리고 ‘인권은 단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속하는 권리’라고 자크 마리탱(Jacques Maritain)은 ‘자연법’이라는 개념에 대해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조지 카툼, 2012).

하구치요이치(2013)는 인권이 ‘인간’의 권리라는 것이며, 신분에 귀속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개인이기 때문에 권리의 주체로 여겨지게 된 데에는 바로 인권의 근대성이 있다고 했다. 인권에 대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개념정의는 아직 없고, 일반적으로 인간의 본래적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가지는 법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주장 또는 자격으로 이해된다.

인권이라는 용어는 현대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정의에 대해서 여전히 명확하지 못한 이유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인권은 완성된 내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합의를 통해 구성되고 확장되었으며, 초기에는 소유와 자유를 강조했다면 오늘날은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평등이란 인간을 대우하는 원칙, 사회를 조직하는 원리, 인간과 집단을 둘러싼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절차 등 모든 영역에서 강조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조효제, 2007; 신정은, 2012). 그러므로 인권의 내용에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며, 어떤 하나의 견해가 절대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신정은, 2012).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1차적으로 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가족 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2차적으로 장애인이 성인이 되어 사회적 역할을 위해 사회로 나아갈 때 경제·사회·문화적인 차별과 태도가 여전히 존재한다. 인권의 영역은 법적제도를 갖추어가고 있음에도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다.

① 인권의 가치

인권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존중으로 인권은 육체적인 생명 뿐 아니라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삶을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을 포함한다.

둘째, 인간이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이며, 생각과 표현의 자유,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지 않을 자유, 사생활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평등에 대한 가치로 모든 사람은 성별, 나이, 출신지역, 종교, 빈부, 건강 등의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는 것이다.

넷째, 정의로 사회구성원 모두의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자원의 재분배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마련하는 등 사회정의와 경제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 책임으로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회적 소수계층의 편에 서서 그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다(유태완 외, 2010).

인권의 가치 중 차별받지 않는 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사회적 소수계층의 지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의무화하고 법적·제도적 테두리 안에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대의 삶을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인권의 특성

UN은 인권의 특성을 첫째, 인권은 천부적(inherent)으로 인간은 이 세상에 나면서부터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인간의 존재와 함께 인권이 탄생했다는 뜻이다. 둘째, 인권은 불가양적(inalienable)으로 물건처럼 남에게 양보하거나 타인의 인권을 자기 것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인권은 만인공유(universal)의 특성으로 인간 모두가 그가 처해 있는 신분이나 상황의 변동 없이 누구나 인권을 가진다는 뜻이다. 즉, 인간은 신분, 성별, 국적, 피부색, 장애인, 노인 약자, 또는 부자권 가난한 소외 계층이건, 외국인 노동자이건 누구든 인권을 똑같이 소유한다는 뜻이다(박경서, 2009).

모두가 다 누려야 할 행복한 권리의식을 누군가는 우월한 위치에서, 다른 한쪽은 피해를 받는 입장에서 있다면 진정한 인권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 한다.

(2) 청소년 인권의식

인권은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있음이 내포되어 있기에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타인의 권리를 유린하거나 희생시켜서는 안된다는 상호 존중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인권은 성인뿐 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정인섭, 2000; 윤정아·김춘희, 2016).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종속변수로 다룬 관련 유성렬(2013), 천정웅(2014)의 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권 보장을 받는지 등을 묻는 질문 구성 내용 등으로 청소년의 인권의식이라고 규정하는 정도였다. 청소년은 자신과는 생각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성별과 연령이 다를 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차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이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Thomas, 2007; 천정웅, 2015).

청소년의 인권의식은 미래에 책임 있는 개인과 시민의 가치들, 행위 유형을 기르는 데에 필요한 자질이 된다. 또한 청소년들이 인권의식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출 때 인권 신장과 인권침해를 예방·치유하며 나아가 사회정의와 사

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배화옥 외, 2015). 이에 따라 우리 삶에서 인권이 차지하는 영역이 넓어짐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이용교 외, 2008).

청소년의 인권의식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려는 데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며, 청소년에게 있어서 자신을 보다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많은 갈등문제 상황에서 책임감 있는 주체적 판단과 타인의 권리 또한 존중할 줄 아는 인성을 갖추기 위해서 요구된다(윤수미, 2005).

초·중·고등학교에서 인권교육은 대부분은 강의에 의한 주입식 수업방식으로 단시간 내에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태도나 행동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이는 입시 준비 위주의 수업에서 비롯한 문제로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인권교육에 대한 인권의식의 내면화는 보편적 권리로서 인간의 사회성 개념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이용교, 2004).

사회가 변화되는 만큼 인권의식도 동반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권의식’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사회적 역할에 따른 나와 타인에 대한 ‘인권의식’은 제각기 다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대상인 대학생은 후기 청소년과 함께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을 포함한 인권의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구체적으로 알아보하고자 한다.

(3) 인권의식에 관한 선행연구

인권의식(인권교육/인권태도/인권감수성/인권현안인식 등 포함)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 대상으로 초등학생(김경태와 박남수, 2013), 중학생(김행진, 2005), 고등학생(김혜정, 2002) 대학생(이승미, 2000; 문미희, 2004; 류지현과 허창영, 2008; 하경희와 강병철, 2009; 임재홍, 2010; 홍선우 외, 2011; 이채식, 2013; 박형원, 2013; 방대혁, 2013; 박진옥, 2014; 김세영, 2015; 임운서·안운정, 2016; 장기연 외, 2017 등),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김현진, 2010), 경찰(이영미와 탁종연, 2007), 전국 공무원, 교사, 의료인, 언론인,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등(송인한 외, 2010)으로 선행연구를 구성하였다.

김경태와 박남수(2013)는 다문화 인권교육 활동과 장애이해교육이 함께 이루

어질 때 초등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교·개인·취미·오락·기타 생활과 같은 모든 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전남지역 소재 중학교 학생 410명을 대상으로 인권의식에 대한 연구에서 장애인의 권리보호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 63.4%, 중요하다 34.6%로 대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학생 3학년(76.6%), 1학년(61.5%) 2학년(52.2%)순으로, 농어촌지역 학생(70.6%)에서 시지역 학생(58.8%) 순으로 장애인에 대한 권리보호가 중요하다고 나타났다(김행진, 2005).

김혜정(2002)의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인권태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인권태도 평균점수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인권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공감과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연구결과이다.

대학생 시기에 이르면 오히려 인권의식은 중·고등학교 때와 비교하여 오히려 후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는 대학생이 초·중등학생과 비교 시 독자적 인식 및 가치체계를 구성하고 있고 학교 교육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독립적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승미, 2000).

문미희(2004)는 충남 공주시 사범대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위해 실험집단(30명), 비교집단 I (33명), 비교집단 II(30명)으로 나누어 8주 동안 8회기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실험집단의 인권감수성, 인권추론능력, 인권가치에 대한 동기화, 인권옹호 행동 잠재력 발달에 효과가 있었고, 비교집단 I 은 인권감수성과 인권가치에 대한 동기화 향상만, 비교집단 II는 4가지 구성요소 중 어떠한 요소에도 효과를 미치지 않았다.

류지현과 허창영(2008)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고, 인권태도에 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권교육의 중요성, 인권보호의 인지, 참여활동 등은 남학생 및 여학생이 공통적으로 인권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공계열별 자연 및 공학계열의 인권태도의 수준이 가장 낮아 전공영역과 인권에 대한 관련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교육내용이 개발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인권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정서 공감,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인권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인권선언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인권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소수자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경우, 참여활동이 적극적일 때 인권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하경희·강병철, 2009).

대학생의 인권의식은 인권에 대한 추상적인 긍정, 양성평등의식, 긍정적인 문화다양성 태도, 사회적 소수자(특히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대한 강한 지지가 있는 반면, 사형폐지나 중·고등학교에서의 체벌에 대한 묵인, 군대입대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경우 인권에 대한 이해도가 후퇴하는 등 인권의식이 개인적 이해관계와 다를 바 없었다(임재홍, 2010).

인천, 강원 지역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의 인권의식은 의무적 측면보다(44.1)는 권리적 측면(47.3)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신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타인의 인권신장을 보호할 의무와 침해하지 않는 것 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홍선우 외, 2011).

이채식(2013)의 대학생청소년의 인권이슈의 발생정도에 대해 여자는 폭력행위로부터 보호, 범죄로부터 보호가 높은 반면, 남자는 수업학습권, 건강권, 복지권이 높았다. 대학생청소년의 인권의 집중 영역에서는 남자는 학생참여로, 여자는 차별금지, 범죄로부터의 안전, 건강권, 수업학습권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도정치성향에 비해 진보정치성향의 대학생청소년이 인권의 중요도(성취도)의 평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박형원(2013)은 사회복지과목 이수 대학생인 원격대학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감수성은 이주노동자와 노동권과 장애아동의 교육권에 인권감수성이 높았고, 5점 척도 기준에서 2.70의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계열 전공 학생과 사회복지 윤리과목을 수강 경험이 있는 학생의 인권감수성이 높았다.

방대혁(2013)은 대학의 인권의식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결과 성별, 자원봉사활동경험의 유무가 인권현안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활동 주요 대상은 아동 및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의 순

으로 사회적 소수자들과의 접촉 및 활동이 인권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박진옥(2014)의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은 중간정도 수준이었고, 인권감수성은 사회복지사보다는 낮고 일반인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 모두 정치성향, 인권교육 경험, 인권과 사회복지 관계인식 관련에서 각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인권과 사회복지실천을 위해 인권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라는 인식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김세영(2015) 사회복지 관련 전공 대학생과 타 전공 대학생은 전체적인 인권의식이 비슷한 수준으로 예비사회복지사의 인권의식 수준이 일반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나타났다. 인권의식 수준에서 시민·정치적 권리 보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권의식 수준이 높았다. 특히 시민·정치적 권리 중 범죄와 관련된 고문, 체포 등의 내용이 매우 낮은 인권의식 수준을 나타냈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대학생이 장애인의 일 할 권리에서만 높은 인권의식 수준을 나타냈다. 성별, 학년과 인권의식 관련성 중 사회복지 관련 대학생 중 여학생이 인권판단력과 인권감수성이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권에 대한 학습경험과 관심이 높을수록 인권의식은 높게 나타났다.

장기연 외(2017)의 작업치료학 전공 대학생들의 인권감수성에 대한 연구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권감수성이 높았고, 인권관련 교육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교육 경험에 있는 학생의 인권감수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영미와 탁종연(2007)은 경찰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 연구에서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인권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가족이나 친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진(2010)은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대한 의식 차이 분석 연구결과 사회복지사들은 비교적 높은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연령·직위·학력이 높고,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인권의식이 높았다. 또한 장애인, 비정규직, 학력, 성별에 따른 차별 등이 가장 심각하다는 연구결과이다.

전국 공무원, 교사, 의료인, 언론인,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등 477명의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현안인식과 장애관련활동 경험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정적인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권현안인식과 장애활동 경험이 상호촉진 효과로 한 변수의 수준이 높을 때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송인한 외, 2010).

강서영과 임유진(2018)은 간호대학생의 노인인권침해 지각에 대한 연구에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이 노인인권침해 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에 비해 정서적 인권침해 지각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위와 같이 다양한 연령층과 사회적 계층인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사회복지사, 경찰, 공무원 외, 노인 등의 인권의식(인권교육/인권태도/인권감수성/인권현안인식 등 포함)의 선행연구를 연도순으로 <표 2>와 같이 정리·요약하였다.

<표 2> 인권의식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도)	주제	연구대상	척도구성
이승미 (2000)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인지·정서 요인에 관한 실험 연구	서울대 교직과정 이 수 대 학 생 (N=105)	-인지중심 처치 프로그램 -공감중심 처치 프로그램
김혜정 (2002)	고등학생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경기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N=392)	-인권태도검사(이승미, 2000) -자아존중감척도(신재은, 1999) -공감척도(박성희, 1996) -사회적 지지척도(신재은, 1999)
문미희 (2004)	사범대 학생을 위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충남공주시 K대학교 사범대학 1, 2학년(N=93)	일반용 인권감수성, 교직원 인권감수성, 종합형 도덕판단력, 인권가치 동기화, 도덕성 예진감사 등 수정
김행진 (2005)	중학생의 인권의식 조사연구	전남지역 소재 중학생(N=435)	-인권일반에 관한 인식 -학교생활관련 인권의식 -학교 내 인권침해
이영미· 탁종연 (2007)	경찰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 연구	경찰종합학교에서 경사기본과정을 이수 중인 경찰관(N=272)	-(Siller(1967)가 개발한 장애요인척도 DFS 43문항 -인권교육 경험 -장애인에 대한 경험
류지현· 허창영 (2008)	대학생의 인권의식에 대한 요인분석 및 인권태도의 인식수준	광역시 소재 C대학생 웹사이트 설문 조사 (N=1,945)	-인권에 대한 지식, 인권감수성, 인권 친화적 행동을 위한 기술을 습득, 인권 친화적 행동의 유도 등 문항 개발 -박성익과 이승미의 연구(2000)의 인권태도 검사지 중 1)언론 출판의 자유 2)기회의 평등성 3)건강 및 복지에 대한 인권태도
하경희· 강병철 (2009)	대학생의 인권태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경기도 소재 4개 대학의 재학생 (N=362)	-박성익과 이승미의 연구(2000)의 인권태도 측정용 검사지 -대인적반응지수,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척도, 학습/경험적 요인(인권선언인지, 인권교육경험, 소수자 경험, 인권침해경험, 참여활동 정도)
임재홍 (2010)	대학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전국 대학(교) (N=434)	국가인권위원회(2007)가 인권관련 강좌 개설현황 및 조사·분석

연구자 (연도)	주제	연구대상	척도구성
김현진 (2010)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대한 의식 차이 분석	청주시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N=100)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에서 2008년 실시한 ‘2008년 지방의원 인권의식 실태조사 보고서’의 선행연구 토대로 ‘인권침해에 대한 인지 척도’
송인한 외 (2010)	장애인에 대한 태도 영향 요인 검증: 인권현안인식과 장애인관련활동경험의 상호작용효과 분석	전국 공무원, 교사, 의료인, 언론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N=477)	-Siller(1970, DFS) 이종남(1994) 번역한 장애태도요인척도 -인권현안인식(국가인권위원회, 2005) -장애인관련활동 수행경험
홍선우 외 (2011)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천, 강원도 지역의 대학생(N=440)	-박봉규(2007)가 개발한 인권의식 진단척도 -평등, 존중, 자유에 대한 권리와 의무성 인식
이채식 (2013)	대학생청소년의 인권인식에 관한 연구	대구, 경북지역 4년제 대학생청소년(N=98)	-최창욱(2006), 대구시교육청(2012), 강수택 외(2009)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인권영역 문항 구성 -차별받지 않을 권리 외 10 문항
박형원 (2013)	사회복지과목 이수 대학생의 인권감수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원격대학 성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S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과목 수강 성인학습자(N=25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발한 인권감수성 척도(2002)
방대혁 (2013)	대학생의 인권의식과 사회적 책임성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생(N=268)	국가인권위원회(2005)가 개발한 인권현안인식척도(차별관련 현안인식, 인권침해관련 현안인식)
김경태· 박남수 (2013)	다문화 인권교육 활동이 초등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 달서구 소재의 J초등학교 6학년 2개반 초등학생(N=29)	-신순자(2007)의 인식변별척도 사용 -장애수용성 척도 -다문화 인권교육프로그램(주2회, 총 12회 구성)
박진욱 (2014)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소재 4년제 종합대학교 사회복지학과(N=401)	-인권감수성(국가인권위원회, 2000) -인권의식(국가인권위원회, 2011) -인권교육경험(박정선, 2007), 인권과 사회복지관계 인식(이명묵, 2010)

연구자 (연도)	주제	연구대상	척도구성
김세영 (2015)	예비 사회복지사의 인권의식 수준 및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사회복지관련 전공 대학생과 타 전공 대학생 간 차이를 중심으로	경기도, 전라도 지역 4년제 대학생(N=279)	김자영(2012)의 청소년용 인권의식 설문지(인권판단력, 인권감수성, 인권행동의사)
임윤서· 안윤정 (2016)	대학생의 잠재된 차별의식 드러내기-차별대상과 편견 성찰에 대한 질적 연구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생(N=391)	-차별대상(명시적이고 은밀한 외국인 배척, 강박사회의 가학적 구분 짓기, 약자라는 이름의 스티그마, 확인화된 정상성의 일탈자들) -대안성찰(개인적 노력-다양한 인식전환, 실천적 행동변화, 사회적 변화-문화·교육의 강화, 사회 제도의 개선)
장기연· 이은진· 공명자 (2017)	작업치료학 전공 대학생들의 인권감수성 조사연구	전국 작업치료학 전공 대학생(N=408)	인권감수성 측정 도구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학생 및 성인용 검사 도구로 개발한 인권감수성 지표(NHRCK, 2002)
강서영· 임유진 (2018)	간호대학생의 노인인권침해 지각에 관한 연구	G광역 소재 전문대 간호학과 재학생(N=506)	노인인권침해 지각정도 -2009년 전국 노인학대실태조사, 정경희 외(2010), 윤지용(2012)

* 표는 연도순으로 작성

인권의식은 그 범위가 넓으며,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에서 연구가 되고 있다. 본 연구자가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대상인 대학생의 인권의식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주제의 선행연구는 방대혁(2013)이 있었다. 그리고 인권의식 척도 구성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박진옥(2014)과 국가인권위원회(2011)의 연구가 있다. 대학생의 인권의식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정상화 이념의 실현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2) 자아존중감

(1) 자아존중감 개념

우리는 타인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태도와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김인자, 1994; 엄외순, 2002).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원인이며, 사회적 행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발달 산물이다(Mason, 2001; 정익중, 2007).

Wylie(1979)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인 동시에 타인의 행동과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호교환적인 성격을 지니며, 이것은 의미 있는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대인관계 행동 수행에 관련된다고 하였다. Harter(1983)는 지각된 능력(perceived competence)과 지각된 수용(perceived acceptance)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지각된 능력이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말하고, 지각된 수용은 부모나 친구, 교사와 같은 중요한 타인들이 내리는 평가를 의미한다(김혜수, 2014). 개인에 대한 평가는 유용성과 도구적 가치에 근거를 둔 인지적 반응이고, 감정은 평가의 크기나 방향과는 상관 없이 개인의 실제적 가치에 근거한 자기 자신의 수용, 만족, 선호하는 반응이다(한현숙, 2008).

자아존중감의 발달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된다고 알려졌고, 모델이론과 반영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모델이론은 모델을 관찰하고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발달하는 것으로 보았고, 반영이론은 중요한 타인 반응에 자신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자아존중감이 발달한다고 본다(김영숙, 2002; 아영아, 2016).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을 자아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인 태도로 정의하였다. 즉 자기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과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전준현, 2010). Gilmore(1974)는 자아존중감을 개인의 자신에 대한 평가적 태도라고 정의하였고, Brownfain(1952)는 감정적 요소가 중심인 개인이 자기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가치있게 여기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 견해로서,

자아개념이 인지적 측면이라면 자아존중감은 감정적 측면이라고 하였다. 즉, 자기존재에 대한 느낌이 자아존중감이라는 것이다(정옥분, 2005; 이용규, 2007).

이상의 여러 학자들이 다른 말로 자아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렸으나 그 의미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전병재(1973)는 자아개념을 ‘인간이 자기 자신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라고 하였고, Rosenberg는 ‘자아에 대한 의식될 수 있는 지각적 조직된 형태’라고 정의 내렸는데 이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

전병재(1973)가 번안한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특히 이 척도는 오랫동안 광범위한 집단에 대한 연구에 사용되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나의 자아상의 거울을 비추어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세계가 ‘태도’에 투영된다면 자아존중감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나 자신에 대한 태도가 타인에게는 어떤 태도를 형성하는지와 관련해 ‘장애인에 대한 태도’라는 종속변수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자주 다루어지는 연구주제로 그만큼 발달 단계상 중요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예측변수이자 결과변수라고 할 수 있다(박재숙, 2010).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시기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에 획득해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이다. 청소년기에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에게 긍정적 감정을 갖게 되고 새로운 행동에 적극적이며 위기대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역동성 이해는 타인의 자아존중감을 지지하고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노혁, 2007; 김지은, 2016).

청소년 시기는 자아존중감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인간이 건강한 행동을 하게 되는 데 관련이 있다(Well and Marwell, 1976; 강석기, 2003, 전준현, 2010).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긍정적이고 가치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다(김미선, 2001; 전준현, 2010). 따라서 청소년

기에 자아존중감이 건강하게 형성되어 있으면 그 변화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변화되는 상황에 대처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전준현, 2010).

이렇게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에 내적(정신적), 외적(신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져 긍정적인 자기평가, 자기 존중은 무엇보다도 청소년 시기에 성취해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여겨진다(배제현, 1984; 김미경, 1999; 김혜정, 2002).

따라서 청소년의 높은 자아존중감이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부모와의 관계, 형제 및 친·인척과의 관계, 초·중·고등학교 진학 후에는 또래관계, 대학을 진학했을 경우에는 또래, 교수, 교내 관계자 등 직·간접적인 관계형성을 맺고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나누어 선택해서 구분하고 있다면 나의 자아존중감이 곧 장애인을 대하는 자아존중감의 표상이라고 여겨진다. 이에 자아존중감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 찾아본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3) 자아존중감에 관한 선행연구

이정란과 김영일(2005), 박언세(2007)의 연구에서 중학생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냈다. 송경숙(2004)은 일반 여자고등학교 학생의 자아개념과 장애인식과의 관계에서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장애인을 보는 관점과 장애학생에 대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태도에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현숙(2008)은 장애학생에 대한 고등학생의 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수용태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학업 및 전반적 자아가 높은 학생은 개인생활에 있어서 장애학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교사관련 자아가 높은 학생은 학교생활과 개인생활에 있어서 장애학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채민진(2009)의 장애이해교육이 일반계 고등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연구결과 자아존중감 변화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옥(2003)의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자아개념은 작지만 상관관계가 있고, 특히 자아개념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자신을 잘 수용하는 사회복지학 전공생은 장애인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지수(2004)의 전북지역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지적 및 행동적 측면의 태도 연구에서 학년이 높은 학생들이 자아존중감이 높고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장애인에 태도는 부정적이었고, 의도적이고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장애인 접촉경험은 태도의 행동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인지적 측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에게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대인관계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및 기술을 익히며,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배려할 줄 아는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홍유미(2005)는 농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교수의 태도에 대한 지각이 높게 나타났고, 교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나타났다. 최길순(2012)의 보건계열(3.82점) 대학생이 비보건계열(3.68점) 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그리고 학년이 높아갈수록, 여자보다는 남자가, '21세 미만' 보다는 '21세 이상'인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았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박승탁(2012)의 연구에서는 생활재활교사가 장애인과의 접촉이 적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나 장애인들과의 접촉 기회 제공과 생활재활교사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시한 연구결과가 있다. 윤현숙과 전병진(2012)의 장애대학생 입학에 대한 교직원 태도에 미치는 요인으로 대인관계가 좋고, 신분이 교원이며, 자아존중감이 높고, 사회적 거리감이 적을수록 긍정적이라고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중·고·대학생·대학교 교직원 등으로 다양한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아존중감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아래의 <표 3>에 연도순으로 정리하였다.

<표 3> 자아존중감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도)	주제	연구대상	연구변인
김미옥 (2003)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자아개념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서울·경기 4년제 대학의 사회복지 전공생(N=400)	-사회적편견대상자 선정 (Wolfensberger의 SRV이론 근거) -자아개념 측정설문지(한상분, 199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나간채와 정근식, 1988)
이지수 (2004)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전북지역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전북지역 두 개 국립 대학생(N=337)	-사회적거리감척도 -장애인에 대한 태도(SADP) -인식자의 내적특성요인(자아존중감, 로젠버그)
송경숙 (2004)	일반 여자고등학교 학생의 자아개념과 장애인식과의 관계	서울시 S구 일반 여자고등학교1, 2학년(N=314)	-중·고등학생용 자아개념 진단검사(송인섭, 1998) -장애인식설문지(국립특수교육원, 2002)
이정란· 김영일 (2005)	장애이해교육이 일반 중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G광역시 1개의 중학교 2학년 2개 학급(N=74)	-Voeltz(1880)의 수용성 척도 -Siperstein과 Gottlieb(1977)의 활동선호도 척도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
홍유미 (2005)	농 대학생이 지각하는 대학교수의 장애인식태도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나사렛대학교 교수 30명, 농 대학생 43명(N=73)	-일반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여론조사(1997) -대학교수의 장애인식 및 인간중심적 태도에 관한 검사 -자아존중감(Coopersmith가 제작한 SEI, 활용)
박언세 (2007)	장애이해교육이 비장애학생의 태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D중학교 1학년 학생들 중 2개 학급의 학생(N=68)	-Voeltz(1880)의 수용성 척도 -Siperstein과 Gottlieb(1977)의 활동선호도 척도 -Rosenberg(1965), 남궁혜정(2002)의 자아존중감 척도
한현숙 (2008)	장애학생에 대한 고등학생의 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경기도 안양시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152명, 경기도 포천시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157명(N=309)	-수용성척도(학교, 개인, 취미오락생활 관련 태도) -김희화(1998)의 척도, 49문항
채민진 (2009)	장애이해교육이 일반계 고등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A시에 소재하는 B여고 1학년 학생(N=43)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 측정(학교생활, 개인생활, 사회생활에서의 긍정 및 부정적 인식 각 10문항, 총 30문항) -자아존중감(Rosinberg, 1965, 10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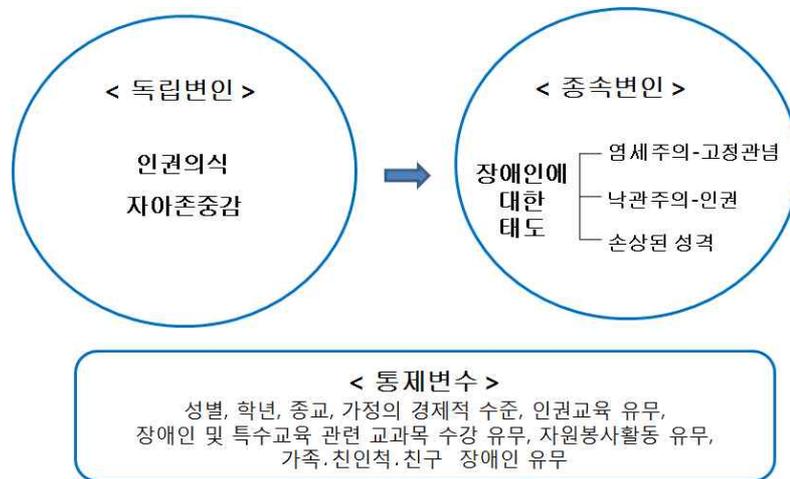
연구자 (연도)	주제	연구대상	연구변인
최길순 (2012)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을 중심으로	-보건계열(G광역시 소재 3개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비보건계열(G광역시 소재 1개 대학 공과계열 3개학과) (N=653)	-Rosenberg(1965), 전병재(1974) 번역한 자아존중감 척도 -Siller(1967) DFS, 이종남(1994)가 수정·보완한 도구
박승탁 (2012)	생활재활교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상북도 A시와 Y군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5개소의 생활재활교사(N=116)	-Rosenberg(1965), 전병재(1974) 번역한 자아존중감 척도 -직무만족요인에 대한 측정도구 -Siller(1967) DFS, 이종남(1994)가 수정·보완한 도구
윤현숙·전병진 (2012)	장애대학생 입학에 대한 교직원 태도에 관한 연구: A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A대학 교직원 (N=68)	-장애유형에 따른 입학에 대한 인식도 -사회적 거리감(전병진, 2003) -대인관계와 자아존중감 -장애대학생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도 -직무에 대한 지향

* 표는 연도순으로 작성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연구 모형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종속변수인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서는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염세주의-고정관념은 장애인의 인간적인 성숙과 도덕심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의미한다. 둘째, 낙관주의-인권은 장애인과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견해를 의미한다. 셋째, 손상된 성격은 장애인이 불편이 많고 과민하며 쉽사리 우울해 질 것이라는 성격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의미한다.

독립변수인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은 전체 문항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특성인 성별, 학년, 종교, 경제적 수준, 인권교육경험, 교과목 수강, 자원봉사활동, 가족·친척·친구장애인 유무 등 10가지로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2. 연구가설

연구문제 1.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인권의식,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는가?

1.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인권의식,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성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인권의식,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학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인권의식,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종교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인권의식,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1-4. 경제적 수준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인권의식,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1-5. 인권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인권의식,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1-6. ‘장애인 및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수강 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인권의식,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1-7. 자원봉사활동 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인권의식,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1-8. 가족장애인 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인권의식,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1-9. 친척장애인 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인권의식,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0. 친구장애인 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인권의식,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은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2. 대학생의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대학생의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염세주의-고정관념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대학생의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낙관주의-인권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대학생의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손상된 성격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학생’이란 청소년 후기(19세경부터 25세까지)에 속한 연령으로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자들로 ‘대학생’을 ‘청소년’이라는 용어로 동일하게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하는 연구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대학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조사도구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self-reported survey)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배포된 설문지 중 449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23부를 제외한 426부를 코딩 작업하였다.

4. 연구변인

1) 종속변인 : 장애인에 대한 태도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외국의 척도로는 ATDP(Attitude Toward Disabled Persons Scale), SADP(Scales of Attitudes Toward Disabled Persons), DFS(Disability Factor Scales)등이 있다.

ATDP는 Yuker 외(1960)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척도로 20문항으로 개발되어 ATDP Form-O로 불리다가, 1962년에 2개의 동등한 30문항으로 Form A and Form B가 다시 개발되었다. SADP는 Aantonak(1981)이 개발한 척도로 24문항 6점 척도로 Yuker 외(1960)가 개발한 ATDP Form-O를 시대에 맞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DFS는 Siller 등(1967)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6점 척도로 7개의 하위요인으로 69문항으로 구성되었다(Antonak & Liveneh, 1988; 오세란, 2014).

본 연구에서는 Aantonak(1981)이 개발한 SADP and ATDP-O를 신은경과 이한나(2011)가 타당화시킨 도구를 김남진·신화성(2016)의 연구에서 활용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였다. 김남진·신화성(2016)의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염세주의-고정관념’, ‘낙관주의-인권’, ‘손상된 성격’ 세 가지로 구성하여, 신뢰도는 (Cronbach's α) .871로 나타났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염세주의-절망’ 10문항(1번~10번), ‘낙관주의-인권’ 3문항(11번~13번), ‘손상된 성격’ 2문항(14번, 15번)으로 나누었다. ‘염세주의-절망’ 10문항, ‘손상된 성격’ 2문항은 역채점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82로 나타났다.

<표 4> 장애인에 대한 태도 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

변인		문항		Cronbach's α	
장애인 태도	염세주의- 고정관념	1	도덕적 결정 능력 없음*	.887	.882
		2	성적행동 몰두*		
		3	쉽게 화 냄*		
		4	정상적인 삶 불가능*		
		5	정상적 사회생활 할 수 없음*		
		6	지나친 기대*		
		7	단순반복 일 적합*		
		8	좋지 않은 영향*		
		9	통명스러운 행동*		
		10	어린아이 같은 모습*		
	낙관주의- 인권	11	동등한 구직기회	.769	
		12	선택의 자유		
		13	외부생활 적응		
	손상된 성격	14	장애인은 걱정 많이 함*	.650	
		15	스스로 안타깝게 생각*		

* 표시는 역문항

2) 독립변인 1 : 인권의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권의식 측정도구는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발한 한국인의 인권의식에 관한 조사 중 현안과 정책 부분인 시민·정치적 권리(12문항), 경제·사회적 권리(8문항),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8문항)에 대해 각 영역별 6문항씩 재구성한 김상미(2016)의 설문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인권의식과 관련한 문항의 응답 범주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의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권의식 전체 18문항 중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12문항으로 재구성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α) .701로 나타났다.

<표 5> 인권의식 척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변인	문항		Cronbach's α
인권의식	1	사형제도	.701
	2	자녀의견 존중	
	3	인터넷 실명제	
	4	보건의료 무상	
	5	증세정책	
	6	사회복지혜택	
	7	교육권리 보장	
	8	성매매 단속차별	
	9	성적성향 존중	
	10	장애인 의무고용	
	11	경찰 피의자 신문	
	12	교도소 수감 인권	

3) 독립변수 2 : 자아존중감

로젠버그 자아존중감 척도(RSE)는 10문항으로 이루어진 단일 차원의 거트만 척도로 처음에는(1962년) 고등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오랫동안 이 척도를 가지고 광범위한 집단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었다는 것이다(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서울대학교 실천사회복지연구회, 2007).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전병재(1974)가 변안하여 4점 Likert형 척도의 응답범주를 5점 Likert 척도로 변경하여 사용한 신주영(2014)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채점하고, 부정적 문항은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수용·존중·가치 있는 인간 등으로 느끼는 것으로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신주영(2013)의 척도 신뢰도 지수(Cronbach’s α)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전체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862로 나타났다.

<표 6> 자아존중감 척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변인	문항		Cronbach’s α
자아존중감	1	가치 있는 사람	.862
	2	좋은 성품 가진	
	3	실패한 사람*	
	4	다른 사람과 일을 잘 할 수 있음	
	5	자랑할 것 없음*	
	6	긍정적 태도	
	7	내 자신 만족	
	8	내 자신 존경 원함*	
	9	쓸모없는 사람*	
	10	좋지 않은 사람*	

* 표시는 역문항

5.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 SPSS/win 18.0을 사용했고, 통계처리를 위해 적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인 장애인에 대한 태도, 인권의식, 자아존중감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통제변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통제변수)의 특성에 따른 변수 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T검증과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 정도를 파악하기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대학생의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대학생 426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학년, 종교, 경제적 수준, 인권교육 경험, 장애인 및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수강, 자원봉사활동, 가족장애인, 친척장애인, 친구장애인 유무로 나누어 10개의 통제변인을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표 7> 조사대상자의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비율(%)	변수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76	41.3	인권	있다	271	63.6	
	여성	250	58.7		없다	155	36.4	
	합계	426	100.0		경험	합계	426	100.0
학년	1학년	96	22.5	교과목	있다	121	28.4	
	2학년	85	20.0		없다	305	71.6	
	3학년	106	24.9		수강	합계	426	100.0
	4학년	139	32.6			있다	284	66.7
	합계	426	100.0			없다	142	33.3
종교	없음	260	61.0	활동	합계	426	100.0	
	천주교	48	11.3		가족	있다	33	7.7
	기독교	59	13.8			없다	393	92.3
	불교	52	12.2	장애인		합계	426	100.0
	기타	7	1.6		있다	93	21.8	
	합계	426	100.0		없다	333	78.2	
경제적 수준	하	23	5.4	친척 장애인	합계	426	100.0	
	중하	75	17.6		있다	122	28.6	
	중	265	62.2		없다	304	71.4	
	중상	60	14.1		친구 장애인	합계	426	100.0
상	3	0.7	있다	122		28.6		
합계	426	100.0	없다	304		71.4		

<표 7>은 조사대상자 특성별 빈도분석 결과이다. 성별로는 남자 176명(41.3%), 여자 250명(58.7%)로 여자 응답자가 더 많이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96명(22.5%), 2학년 85명(20.0%), 3학년 106명(24.9%), 4학년 139명(32.6%)으로 4학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별로는 ‘없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60명(6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천주교’ 48명(11.3%), ‘기독교’ 59명(13.8%), ‘불교’ 52명(12.2%), ‘기타’ 7명(1.6%)으로 응답했다. 경제적 수준으로는 ‘하’ 23명(5.4%), ‘중하’ 75명(17.6%), ‘중’ 265명(62.2%), ‘중상’ 60명(14.1%), ‘상’ 3명(0.7%)으로 응답했다. 인권교육과 관련한 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한 응답으로는 ‘있다’ 271명(63.6%), ‘없다’ 155명(36.4%)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관련’ 과목 및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수강 여부에 대해서는 ‘있다’ 121명(28.4%), ‘없다’ 305명(71.6%)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 활동 경험 여부로는 ‘있다’ 284명(66.7%), ‘없다’ 142명(33.3%)로 응답했다.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있다’ 33명(7.7%), ‘없다’ 393명(92.3%)로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친척 중에 장애인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있다’ 93명(21.8%), ‘없다’ 333명(78.2%)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 중에 장애인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있다’ 122명(28.6%), ‘없다’ 304명(71.4%)으로 나타났다.

2.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

대학생 426명에 대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8>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주요 변수들을 구성하는 각 요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총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염세주의-고정관념(M=3.59), 낙관주의-인권(M=3.95), 손상된 성격(M=3.36)의 모든 측면에서 보통이상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권의식(M=3.68)과 자아존중감(M=3.63)도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8>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염세주의- 고정관념	426	1	5	3.59	.582
장애인 태도 낙관주의- 인권	426	1	5	3.95	.710
손상된 성격	426	1	5	3.36	.826
인권의식	426	1	5	3.68	.467
자아존중감	426	2	5	3.63	.606

3.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1) 성별

성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인 중 손상된 성격($t=-.2251, p<.05$)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학생($M=3.43$)이 남학생($M=3.2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염세주의-고정관념과 낙관주의-인권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인권의식($t=-3.126, p<.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여성($M=3.74$), 남성($M=3.59$)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9> 성별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분석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p	
장애 인 태 도	염세주의-	남자	176	3.57	.611	-.722	.471
	고정관념	여자	250	3.61	.561		
	낙관주의-	남자	176	3.92	.720	-.531	.596
	인권	여자	250	3.96	.704		
	손상된	남자	176	3.25	.842	-2.251*	.025
	성격	여자	250	3.43	.807		
인권의식	남자	176	3.59	.509	-3.126**	.002	
	여자	250	3.74	.426			
자아존중감	남자	176	3.66	.665	.661	.509	
	여자	250	3.62	.561			

* $p<.05$, ** $p<.01$

2) 학년

학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인 중 염세주의-고정관념, 낙관주의-인권, 손상된 성격 요인은 2학년과 4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높게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학년에 따른 차이는 연구 대상 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학년에 따른 인권의식은 1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인권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자아존중감은 3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10> 학년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분석

구분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F	p	
장애 인 태 도	염세주의- 고정관념	1학년	96	3.56	.555	2.176	.090
		2학년	85	3.73	.572		
		3학년	106	3.54	.606		
		4학년	139	3.57	.580		
	낙관주의- 인권	1학년	96	3.91	.770	.702	.552
		2학년	85	4.04	.767		
		3학년	106	3.91	.714		
		4학년	139	3.95	.625		
	손상된 성격	1학년	96	3.33	.750	2.456	.063
		2학년	85	3.44	.921		
		3학년	106	3.19	.841		
		4학년	139	3.45	.789		
인권의식	1학년	96	3.72	.456	1.524	.128	
	2학년	85	3.70	.409			
	3학년	106	3.59	.580			
	4학년	139	3.69	.406			
자아존중감	1학년	96	3.67	.607	1.903	.128	
	2학년	85	3.59	.617			
	3학년	106	3.73	.503			
	4학년	139	3.56	.661			

3) 종교

종교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인 중 염세주의-고정관념, 낙관주의-인권, 손상된 성격 요인으로 종교가 있음이 없음보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종교에 따른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은 천주교가 다른 종교와 종교가 없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11> 종교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분석

구분	종교	N	평균	표준편차	F	p	
장애 인 태 도	염세주의- 고정관념	없음	260	3.57	.594	1.899	.110
		천주교	48	3.78	.500		
		기독교	59	3.63	.541		
		불교	52	3.51	.604		
		기타	7	3.39	.677		
	낙관주의- 인권	없음	260	3.95	.692	1.421	.226
		천주교	48	4.01	.797		
		기독교	59	4.04	.581		
		불교	52	3.81	.812		
		기타	7	3.52	.836		
	손상된 성격	없음	260	3.34	.825	1.435	.222
		천주교	48	3.34	.918		
		기독교	59	3.48	.748		
		불교	52	3.38	.839		
		기타	7	2.71	.488		
	인권의식	없음	260	3.65	.466	2.294	.059
천주교		48	3.86	.521			
기독교		59	3.62	.376			
불교		52	3.68	.482			
기타		7	3.74	.554			
자아존중감	없음	260	3.63	.604	.805	.523	
	천주교	48	3.73	.598			
	기독교	59	3.67	.597			
	불교	52	3.55	.634			
	기타	7	3.43	.626			

4) 경제적 수준

경제적 수준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인 중 염세주의-고정관념, 낙관주의-인권, 손상된 성격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인권의식은 '상'이라고 인식하는 대학생의 인권인식 수준이 '중상 이하' 모두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f=5.235, p<.001$)은 '상($M=4.10$)'의 평균값이 '중상', '중', '중하', '하'라고 보는 경제적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2> 경제적 수준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분석

구분	경제적수준	N	평균	표준편차	F	p	
장애 인 태 도	염세주의- 고정관념	하	23	3.68	.560	.357	.839
		중하	75	3.57	.586		
		중	265	3.59	.577		
		중상	60	3.61	.611		
	낙관주의- 인권	상	3	3.30	.755	.532	.712
		하	23	3.94	.672		
		중하	75	4.02	.612		
		중	265	3.91	.725		
	손상된 성격	중상	60	4.01	.764	1.666	.157
		상	3	4.11	1.018		
		하	23	3.52	1.192		
		중하	75	3.25	.883		
	인권의식	중	265	3.42	.752	.581	.676
		중상	60	3.18	.892		
		상	3	3.00	.000		
		하	23	3.60	.630		
자아존중감	중하	75	3.71	.471	5.235***	.000	
	중	265	3.67	.448			
	중상	60	3.68	.465			
	상	3	3.97	.835			
	중상	60	3.76	.760	5.235***	.000	
	중	265	3.50	.637			
	중하	75	3.59	.557			
	상	3	3.91	.620			
	중상	60	4.10	.819			
	상	3	4.10	.819			
	중하	75	3.50	.637			
	중	265	3.59	.557			

*** $p<.001$

5) 인권교육 경험

인권교육 경험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인 중 염세주의-고정관념, 낙관주의-인권, 손상된 성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권의식은 인권교육 경험이 있다가 없다가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자아존중감($t=2.776, p<.01$)은 인권교육 경험이 있다($M=3.70$)가 없다($M=3.5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인권교육 경험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분석

	구분	교육경험	N	평균	표준편차	t	p
장애 인 태 도	염세주의- 고정관념	있다	271	3.62	.568	1.448	.148
		없다	155	3.54	.603		
	낙관주의- 인권	있다	271	3.96	.721	.944	.640
		없다	155	3.92	.693		
	손상된 성격	있다	271	3.36	.819	.894	.874
		없다	155	3.35	.840		
인권의식		있다	271	3.69	.462	.844	.428
		없다	155	3.65	.478		
자아존중감		있다	271	3.70	.563	2.776**	.006
		없다	155	3.52	.662		

** $p<.01$

6) ‘장애인,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수강

교과목 수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인 중 염세주의-고정관념, 낙관주의-인권, 손상된 성격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권의식($t=2.573$, $p<.05$)은 장애인 관련,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수강 유무에 있다($M=3.78$)가 없다($M=3.6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교과목 수강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장애인,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수강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분석

	구분	교과목수강	N	평균	표준편차	t	p
장애 인 태 도	염세주의- 고정관념	있다	121	3.60	.624	.249	.803
		없다	305	3.59	.565		
	낙관주의- 인권	있다	121	4.01	.792	.130	.215
		없다	305	3.92	.674		
	손상된 성격	있다	121	3.38	.938	.339	.735
		없다	305	3.35	.778		
인권의식	있다	121	3.78	.528	2.573*	.011	
	없다	305	3.64	.435			
자아존중감	있다	121	3.71	.648	.217	.087	
	없다	305	3.60	.586			

* $p<.05$

7)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인 중 염세주의-고정관념, 낙관주의-인권, 손상된 성격 세 가지 하위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도 자원봉사활동이 있다가 없다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15>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분석

구분	자원봉사활동	N	평균	표준편차	t	p	
장애 인 태 도	염세주의-	있다	284	3.59	.556	-.218	.828
	고정관념	없다	142	3.60	.633		
	낙관주의-	있다	284	3.95	.690	.096	.923
	인권	없다	142	3.94	.751		
	손상된	있다	284	3.38	.787	.853	.394
	성격	없다	142	3.31	.899		
인권의식	있다	284	3.70	.437	.286	.196	
	없다	142	3.63	.522			
자아존중감	있다	284	3.64	.601	.164	.870	
	없다	142	3.63	.618			

8) 가족장애인

가족장애인 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인 중 염세주의-고정관념과 낙관주의-인권, 손상된 성격 세 가지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권의식($t=2.146, p<.05$)은 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M=3.84$)가 없다($M=3.66$)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가족장애인 유무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가족장애인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분석

구분	가족장애인	N	평균	표준편차	t	p	
장애 인 태 도	염세주의-	있다	33	3.65	.693	.331	.516
	고정관념	없다	393	3.59	.572		
	낙관주의-	있다	33	4.15	.584	.283	.083
	인권	없다	393	3.93	.717		
	손상된	있다	33	3.24	.762	-.828	.408
	성격	없다	393	3.37	.831		
인권의식	있다	33	3.84	.424	2.146*	.032	
	없다	393	3.66	.469			
자아존중감	있다	33	3.55	.653	-.870	.385	
	없다	393	3.64	.602			

* $p<.05$

9) 친척장애인

친척장애인 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인 중 손상된 성격($t=2.185$, $p<.05$)은 친척 중 장애인의 유무에 있다($M=3.52$)가 없다($M=3.3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염세주의-고정관념과 낙관주의-인권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친척장애인 유무에 따른 인권의식($t=3.520$, $p<.001$)은 친척 중 장애인이 있다($M=3.83$)가 없다($M=3.6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친척장애인 유무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친척장애인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분석

	구분	친척장애인	N	평균	표준편차	t	p
장애 인 태 도	염세주의-	있다	93	3.62	.634	.525	.600
		없다	333	3.58	.567		
	낙관주의-	있다	93	4.07	.600	1.937	.053
		인권	없다	333	3.91		
	손상된 성격	있다	93	3.52	.872	2.185*	.029
		없다	333	3.31	.808		
인권의식	있다	93	3.83	.446	3.520***	.000	
	없다	333	3.63	.465			
자아존중감	있다	93	3.62	.587	-.236	.813	
	없다	333	3.64	.612			

* $p<.05$, *** $p<.001$

10) 친구장애인

친구장애인 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인 중 염세주의-고정관념, 낙관주의-인권, 손상된 성격 요인 모두 친구 중에 장애인이 있다가 없다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였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친구장애인 유무에 따른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도 친구장애인이 있다가 없다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18> 친구장애인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분석

	구분	친구장애인	N	평균	표준편차	t	p
장애 인 태 도	염세주의-	있다	122	3.61	.574	.324	.746
	고정관념	없다	304	3.59	.586		
	낙관주의-	있다	122	3.98	.687	.642	.521
	인권	없다	304	3.93	.719		
	손상된	있다	122	3.39	.801	.580	.562
	성격	없다	304	3.34	.836		
	인권의식	있다	122	3.74	.491	1.776	.076
		없다	304	3.65	.456		
	자아존중감	있다	122	3.70	.632	1.542	.124
		없다	304	3.60	.594		

4.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조사대상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한 분석들에 앞서, 회귀분석에 포함되는 독립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공차 한계(tolerance) 및 분산팽창인자(VIF)를 분석하여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단하였다. 아래 표에서 제시한 것처럼 상관계수가 모두 0.7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19> 상관관계 분석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염세주의-고정관념	1														
2. 낙관주의-인원	.443**	1													
3. 손상된성격	.347**	.228**	1												
4. 인권의식	.246**	.340**	.149**	1											
5. 자아존중감	.242**	.180**	.073**	.131**	1										
6. 성별	-.035	-.026	-.109*	-.155**	.033	1									
7. 학년	-.071	-.027	-.025	-.065	.005	-.021	1								
8. 종교	.047	-.009	.019	.060	.008	-.094	-.073	1							
9. 경제적수준	-.006	-.042	.027	-.009	.064	-.119*	-.007	-.009	1						
10. 교육경험	.070	.023	.008	.038	.140**	.080	-.107*	.064	.027	1					
11. 교과목수강	.012	0.06	.018	.135**	.083	.042	-.038	.084	-.113*	.087	1				
12. 자원봉사활동	-.011	.005	.043	.063	.008	.057	.087	.075	-.008	.086	.147**	1			
13. 가족장애인	.032	.084	-.040	.104*	-.042	-.047	.054	.057	-.113*	.055	.149**	.075	1		
14. 친척장애인	.025	.094	.106*	.169**	-.011	.030	.017	-.096*	-.035	.069	.184**	.169**	.187**	1	
15. 친구장애인	.016	.031	.028	.086	.075	.122*	-.044	.037	-.049	.069	.211**	.206**	.108*	.105*	1

*p<.05, **p<.01

성별 : 남=1, 학년 : 교학년(3.4학년)=1, 종교 : 있음=1, 경제적 수준 : 중상이상=1, 교육경험 : 있음=1, 교과목수강 : 있음=1, 자원봉사경험 : 있음=1, 가족장애인 : 있음=1, 친척장애인 : 있음=1, 친구장애인 : 있음=1

5.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장애인에 대한 태도 구성요소별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염세주의-고정관념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이 염세주의-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0>에 제시되어 있다. 염세주의-고정관념에 대한 설명력은 11.3%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유의한 영향이 나타난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권의식($t=4.414$, $p=.000$)과 자아존중감($t=4.559$, $p=.000$)이 높을수록 염세주의-고정관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이 염세주의-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분석

변인	염세주의-고정관념			
	B	표준오차	Beta	t
상수	1.907	.269		7.087***
인권의식	.268	.061	.215	4.414***
자아존중감	.209	.046	.217	4.559***
성별	-.008	.057	-.007	-.138
학년	-.064	.056	-.055	-1.158
종교	.035	.057	.030	.621
경제적수준	-.032	.065	-.023	-.482
교육경험	.036	.058	.030	.625
교과목수강	-.054	.064	-.042	-.857
자원봉사활동	-.023	.060	-.018	-.376
가족장애인	.053	.105	.024	.501
친척장애인	.001	.069	.001	.015
친구장애인	-.019	.063	-.015	-.304
R^2			.113	
수정된 R^2			.088	
F			4.406***	

*** $p<.001$

(2) 낙관주의-인권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이 낙관주의-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1>에 제시되어 있다. 낙관주의-인권에 대한 설명력은 14.2%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유의한 영향이 나타난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권의식($t=6.583$, $p=.000$)과 자아존중감($t=3.142$, $p=.000$)이 높을수록 낙관주의-인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이 낙관주의-인권에 미치는 영향분석

변인	낙관주의-인권			
	B	표준오차	Beta	t
상수	1.640	.323		5.077***
인권의식	.480	.073	.316	6.583***
자아존중감	.173	.055	.147	3.142***
성별	.023	.068	.016	.341
학년	-.019	.067	-.013	-.287
종교	-.037	.068	-.026	-.549
경제적수준	-.068	.079	-.040	-.866
교육경험	-.018	.069	-.012	-.260
교과목수강	-.009	.076	-.006	-.115
자원봉사활동	-.029	.072	-.020	-.409
가족장애인	.143	.126	.054	1.133
친척장애인	.059	.083	.035	.714
친구장애인	-.022	.075	-.014	-.290
R^2			.142	
수정된 R^2			.117	
F			5.711***	

*** $p < .001$

(3) 손상된 성격

인권 의식과 자아존중감이 손상된 성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2>에 제시되어 있다. 손상된 성격에 대한 설명력은 4.8%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인권 의식과 자아존중감이 손상된 성격에 미치는 영향분석

변인	손상된 성격			
	B	표준오차	Beta	t
상수	2.346	.396		5.928***
인권 의식	.199	.089	.112	2.225*
자아존중감	.081	.067	.059	1.198
성별	-.169	.084	-.101	-2.021*
학년	-.034	.082	-.020	-.411
종교	.023	.083	.014	.278
경제적수준	.014	.096	.007	.141
교육경험	-.010	.085	-.006	-.114
교과목수강	-.027	.093	-.015	-.291
자원봉사활동	.051	.088	.029	.578
가족장애인	-.228	.155	-.074	-1.476
친척장애인	.204	.102	.102	1.999*
친구장애인	.037	.092	.020	.398
R^2			.048	
수정된 R^2			.021	
F			1.744	

* p<.05, *** p<.001

2)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의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한 결과는 <표 23>에 제시되어 있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설명력은 14.4%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권의식($t=5.704$, $p=.000$)과 자아존중감($t=4.516$, $p=.000$)이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제변인 모두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변인	장애인에 대한 태도			
	B	표준오차	Beta	t
상수	2.047	.254		8.065***
인권의식	.327	.057	.273	5.704***
자아존중감	.195	.043	.212	4.516***
성별	-.022	.054	-.019	-.408
학년	-.060	.052	-.053	-1.142
종교	.027	.053	.024	.507
경제적수준	-.027	.062	-.020	-.434
교육경험	.018	.054	.016	.335
교과목수강	-.041	.060	-.033	-.677
자원봉사활동	-.010	.057	-.008	-.171
가족장애인	.036	.099	.017	.363
친척장애인	.040	.065	.030	.610
친구장애인	-.008	.059	-.006	-.134
R^2			.144	
수정된 R^2			.120	
F			5.808***	

*** $p < .001$

6. 연구가설 검증 결과

<연구문제 1>의 분석결과 귀무가설 기각 부분채택 6개, 귀무가설 기각 못함 4개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1-1>의 성별은 장애인에 대한 태도(손상된 성격), 인권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부분채택 되었다. <가설 1-4>는 경제적 수준은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부분채택 되었다. <가설 1-5>의 인권교육경험은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부분채택 되었다. <가설 1-6>의 ‘장애인 및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수강에서 인권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부분채택 되었다. <가설 1-8>의 가족장애인 유무는 인권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부분채택 되었다. <가설 1-9>의 친척장애인 유무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손상된 성격), 인권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부분채택 되었다. 그러나 <가설1-2>의 학년, <가설 1-3>의 종교, <가설 1-7>의 자원봉사활동, <가설 1-10>의 친구장애인 유무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세 하위요인, 인권의식, 자아존중감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기각되었다.

다음은 <연구문제 2>의 분석결과 귀무가설 기각 부분채택 2개로 나타났고, 귀무가설 기각 못함 1개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2-1>은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 요인 중 염세주의-고정관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고 부분채택 되었다. <가설 2-2>은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 요인 중 낙관주의-인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고 부분채택 되었다. <가설 2-3>은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 요인 중 손상된 성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기각되었다.

<표 24>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결과

연구문제	연구분석	연구가설 검증결과	
연구문제 1.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인권의식,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T-검정 ANOVA	1-1 성별	귀무가설 기각, 부분 채택 -성별은 장애인에 대한 태도(손상된 성격), 인권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1-2 학년	귀무가설 기각 못함, 기각 -학년은 장애인에 대한 태도, 인권의식,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1-3 종교	귀무가설 기각 못함, 기각 -종교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 인권의식,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1-4 경제적 수준	귀무가설 기각, 부분 채택 -경제적 수준은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1-5 인권 교육경험	귀무가설 기각, 부분 채택 -인권교육경험은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1-6 교과목 수강	귀무가설 기각, 부분 채택 -교과목수강은 인권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1-7 자원 봉사활동	귀무가설 기각 못함, 기각 -자원봉사활동은 장애인에 대한 태도, 인권의식,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1-8 가족 장애인	귀무가설 기각, 부분 채택 -가족장애인 인권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1-9 친척 장애인	귀무가설 기각, 부분 채택 -친척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태도(손상된 성격), 인권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1-10 친구 장애인	귀무가설 기각 못함, 기각 -자원봉사활동은 장애인에 대한 태도, 인권의식,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연구문제	연구분석	연구가설 검증결과
<p>연구문제2. 대학생의 인권 의식과 자아존 중감이 높을수 록 장애인에 대 한 태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p>	<p>다중 회귀분석</p>	<p>2-1) 염세주의-고정관념 : 귀무가설 기각, 부분 채택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 요인 중 염세주의-고정관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
		<p>2-2) 낙관주의-인권 : 귀무가설 기각, 부분 채택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 요인 중 낙관주의-인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
		<p>2-3) 손상된 성격 : 귀무가설 기각 못함, 기각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 요인 중 손상된 성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

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대학생 426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 인권의식, 자아존중감, 배경요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인 중 손상된 성격($t=-2.251, p<.05$)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학생($M=3.43$)이 남학생($M=3.2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장애인식에 긍정적으로 높게 나타난 방대혁(2013), 신가인 외(2017)의 연구와 일치하다. 성별에 따른 인권의식($t=-3.126, p<.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여성($M=3.74$), 남성($M=3.59$)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류지현과 허창영(2008), 방대혁(2013), 장기연 외(2017), 강서영과 임유진(2018)의 연구와 일치하다.

학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염세주의-고정관념, 낙관주의-인권, 손상된 성격 세 하위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저학년(유창숙, 2012; 노복순, 2017)이 높은 경우와 고학년(신가인 외, 2017; 김정화 외 2014)이 높은 경우 등 연구자마다 결과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도 학년에 따른 차이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종교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염세주의-고정관념, 낙관주의-인권, 손상된 성격 세 하위요인 종교가 '있음'이 '없다'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박은경(2005), 송수지와 김정민(2008)의 종교에 따른 장애인의 태도에 차이가 없는 결과와 일치한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f=5.235, p<.001$)은 ‘상($M=4.10$)’의 평균값이 ‘중상’, ‘중’, ‘중하’, ‘하’라고 보는 경제적 수준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경제적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자아존중감을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자아존중감($t=2.776, p<.01$)은 인권교육 경험이 있다($M=3.70$)가 없다($M=3.5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선우 외(2011)의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고, 인권교육 경험이 인권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서 인권교육 경험의 중요성과 인권교육 내용에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성부분도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및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수강 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염세주의-고정관념, 낙관주의-인권, 손상된 성격 세 하위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김정화 외(2014)의 연구결과 장애인에 대한 수업경험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과 일치하며, 교과목 수강에 따른 태도점수 및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연구결과(이철원, 2000; 박은경, 2005; 송수지·김정민, 2008; 이승호, 2009; 방대혁, 2013)와는 상반된다. 인권의식($2.573, p<.05$)은 장애인 관련,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수강 유무에 있다($M=3.78$)가 없다($M=3.6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대학생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교과목 수강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자원봉사활동 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염세주의-고정관념, 낙관주의-인권, 손상된 성격 세 하위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전미영과 이한우(2017)의 연구에서 동일한 척도로 염세주의-고정관념(있다)과 손상된 성격 요인(없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결과와는 다르다.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대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의무적인 실습이수를 위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결과는 다를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전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의 대상자의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에 사전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성과

긍정적인 인식 함양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가족장애인 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염세주의-고정관념, 낙관주의-인권, 손상된 성격 세 하위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김남진과 신화성(2016)의 연구에서 가족·친척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결과와 일치한다. 인권의식($t=2.146$, $p<.05$)은 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M=3.84$)가 없다($M=3.66$)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친척장애인 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인 중 손상된 성격($t=2.185$, $p<.05$)은 친척 중 장애인의 유무에 있다($M=3.52$)가 없다($M=3.3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한영숙(2001), 박은경(2005), 이승호(2009), 유창숙(2012)의 연구에서 가족·친척 중 장애인이 있는 대학생일 경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인권의식($t=3.520$, $p<.01$)은 친척 중 장애인이 있다($M=3.83$)가 없다($M=3.6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친구장애인 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염세주의-고정관념, 낙관주의-인권, 손상된 성격 세 하위요인 모두 친구 중에 장애인이 '있다'가 '없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였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김진영과 남진열(2005)의 장애인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염세주의-고정관념에 대한 설명력은 11.3%이며, 인권의식($t=4.414$, $p=.000$)과 자아존중감($t=4.559$, $p=.000$)이 높을수록 염세주의-고정관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주의-인권에 대한 설명력은 14.2%이며, 인권의식($t=6.583$, $p=.000$)과 자아존중감($t=3.142$, $p=.000$)이 높을수록 낙관주의-인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상된 성격에 대한 설명력은 4.8%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대학생의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설명력은 14.4%이며, 인권의식($t=5.704$, $p=.000$)과 자아존중감($t=4.516$, $p=.000$)이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장애인에 대한 관점이 1970년대 이후 장애 당사자들의 자기 조직화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촉발되었고, 장애문제를 인권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계속 변화해 왔다(세계보건기구, 2012). 대학생은 앞으로 다원화되어가는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사회를 이끌어 나갈 국가 전반의 힘이 될 연령대이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 정립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태도, 행동 등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 결과 한계점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표집하였다는 점에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향후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연령과 사회적 계층에서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태도, 인권의식, 자아존중감이 ‘나와 타인의 관계’라는 유사성 및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양적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소수의 대학생, 일반인, 초·중·고등학생 등의 다양한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통한 연구의 가치와 당위성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본 연구를 바탕으로 더 다양한 연구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한다.

첫째, 인권교육 경험이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인권의식에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결과 대학생들은 인권교육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인권교육 내용이나 교육 전달방법에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학 내 인권관련 수강과목이 전공 선택, 교양 선택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지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성별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세 가지 하위요인 중 손상된 성격과 인권의식이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승호(2009), 고창환(2009), 오원석과 조인수(2011)가 제주도 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상황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실제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성별을 구분해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인권의식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이 장애인복지 분야로 현장실습을 하기 전에 대학 내 가상체험관을 만들어 체험을 통한 1차적 접근과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2차적 접근의 기회를 갖는 것이다.

셋째, 장애인구 증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에 따라 행복한 삶 살 수 있다. 2017년 장애인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장애 인구는 2,511,051명으로 4.9%에 해당하며, 2002년의 1,294,254명보다 2.2% 장애 인구가 증가한 상태이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7). 장애발생 원인은 사고 혹은 질환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88.1%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8). 후천적 장애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며, 나와 가족구성원에 장애가 발생할 때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상/하 관계가 아닌 평등하고 수평적인 관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서영·임유진. 2018. 간호대학생의 노인인권침해 지각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제18권 제2호, PP. 285-301.
- 강현숙·조결자·지은선·장미희·이경혜·최은영·송영아·장정미·이경재·김
소영·유경희. 2003.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재활간호학회지, 제6권 제2호, pp. 164-172.
- 고창환. 2009. 개인·사회적 상황에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장애인식 연
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가인권위원회. 2011. 국민인권의식조사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 김경태·박남수. 2013. 다문화 인권교육 활동이 초등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과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3권 제1호, pp. 74-93.
- 김기홍. 2002. 지체장애인에 대한 독일과 한국 대학생들의 태도에 관한 비교연구.
특수교육학연구, 제36권 제4호, pp. 51-75.
- 김남진·신화성. 2016. SADP and ATDP-O를 이용한 예비중등교사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17권 제3호, PP. 313-331.
- 김녕. 2013. 인권생각-인권으로 희망찾기. 서울 : 도서출판 선.
- 김미옥. 2003.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자아개념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
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15권, pp. 138-167.
- 김민수. 2001.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동료 집단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
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2012.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미. 2016. 청소년 복지태도의 유형화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상미·남진열. 2014. 후기청소년의 생활양식과 인권의식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제16권 제4호, pp. 173-193.
- 김세영. 2015. 예비 사회복지사의 인권의식 수준 및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 관련 전공 대학생과 타 전공 대학생 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제32권, pp. 281-301.

- 김정배. 200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35호, pp.133-173.
- 김정임. 2003. 장애인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서울시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화·최성남·방그레·김현지·이시윤. 2014. 간호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인식 및 관심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학회, 제18권 제3호, pp. 147-169.
- 김지은. 2016.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자영. 2012. 청소년 인권의식의 유형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현. 2015. Q방법론을 적용한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영·남진열. 2005. 장애대학생에 대한 비장애대학생의 인식과 태도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2권 제4호, pp. 39-58.
- 김태련·조혜자·이선자·방희정·조숙자·조성원·김현정·홍주연·이계원·설인자·손원숙·홍순정·박영신·손영숙·김명소·성은현. 2009. 발달심리학. 서울 : 학지사.
- 김현진. 2010.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대한 의식 차이 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제34권, pp. 109-132.
- 김혜수. 2014.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학교생활적응 매개효과. 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정. 2002. 고등학생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행진. 2005. 중학생의 인권의식 조사연구. 여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복순. 2017.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연구. 한중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지현·허창영. 2008. 대학생의 인권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및 인권태도의 인식 수준.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제1호, pp. 175-202.
- 문미희. 2004. 사범대 학생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경서. 2009. 지구촌 시대의 평화와 인권 국제기구에 도전하는 젊은이에게. 파주 : 나남.
- 박승탁. 2012. 생활재활교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학과목회, 제38권, PP. 363-394.
- 박언세. 2007. 장애이해교육이 비장애학생의 태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경. 2005.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연구-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경험 유무에 따른 비교.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숙. 2010. 학교 청소년의 인권보장,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제12권 제1호, pp. 35-59.
- 박진옥. 2014.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형원. 2013. 사회복지과목 이수 대학생의 인권감수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원격대학 성인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8호, pp. 191-200.
- 방대혁. 2013. 대학생의 인권인식과 사회적 책임성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화옥 · 심창학 · 김미옥 · 양영자. 2015. 인권과 사회복지. 서울 : 나남
- 보건복지부. 2018. 장애인정책과 보도자료.
-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서울대학교 실천사회복지연구회. 2007. 제2판 실천가와 연구자를 위한 사회복지척도집. 파주 : 나눔의 집.
- 성민선 · 조홍식 · 오창순 · 홍금자 · 김혜래. 2014. 학교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학지사.
- 세계보건기구. 전지혜 · 박지영 · 양원태 번역. 2012. WHO 세계장애보고서. 서울 : 한국장애인재단.
- 송경숙. 2004. 일반 여자고등학교 학생의 자아개념과 장애인식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수지 · 김정민. 2008 대학생의 장애인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제9권 제1호, pp. 83-99.

- 송인한 · 이한나 · 이용 ·정은혜. 2010. 장애인에 대한 태도 영향요인 검증: 인권현안인식과 장애인관련활동경험의 상호작용효과 분석. 재활복지학회, 제14권 제3호, pp. 41-67.
- 신가인 · 우예신 · 박혜연 · 김정란. 2017. 대학생의 장애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재활복지학회, 제21권 제4호, pp. 177-193.
- 신은경 · 이한나. 2011. 장애인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SADP and ATDP-O)의 타당도 검증. 한국사회복지학, 제63권 1호, pp. 267-289.
- 신정은. 2012. 고등학생의 인권의식 수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주영. 2014. 대학생의 용서수준, 자아존중감, 인지정서조절전략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가족치료연구, 제13호, pp. 55-69.
- 아영아. 2016. 인권을 존중받은 경험과 청소년의 학교폭력 주변인역할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교정복지연구, 제40호, pp. 75-98.
- 엄의순. 2002. 대인불안에 미치는 비합리적 신념, 자아존중감, 그리고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세란. 2014. 장애인에 대한 태도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제24권 1호, pp. 69-86.
- 오원석 · 조인수. 2011. 사회적 상황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지적장애연구, 제13집 제3호, pp. 91-113.
- 유동철. 2009. 인권 관점에서 보는 장애인복지. 과주 : 집문당.
- 유성렬. 2013.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창숙. 2012.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태완 · 김성철 · 허영숙 · 최금주 · 김용환. 2010. 장애인복지론. 서울 : 창지사.
- 윤수미. 2005. 학교연계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청소년 인권의식과 인권옹호태도를 중심으로. 송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정아 · 김춘희. 2016. 사회적 지지가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권의식의 매개효과.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0권 제1호, PP. 145-163.

- 윤현숙·전병진. 2012. 장애대학생 입학에 대한 교직원 태도에 관한 연구: A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3권 제4호, PP. 261-281
- 이미경. 2009. 대학생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연·문용우. 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권리인식과의 관계 연구. 청소년학 연구, 제9권 제1호, pp. 65-89.
- 이승미. 2000.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인지·정서 요인에 관한 실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승호. 2009. 사회적 상황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관련 변인 간 관계 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미·탁종연. 2007. 경찰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6권 제3호, pp. 3-30.
- 이용교. 2004. 청소년인권과 인권교육. 서울 : 인간과 복지.
- 이용교·천정웅·김경준. 2008. 청소년인권과 참여. 서울 : 양서원.
- 이용규. 2007. 인문계 고등학생의 비합리적 신념과 자아존중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란·김영일. 2005. 장애이해 프로그램이 일반 중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제7권 제2호, pp. 149-166.
- 이지수. 2004.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전북지역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제4권 제2호(통권 제8호), pp. 39-57.
- _____. 2005. 우리나라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관련요인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26호(겨울), pp. 151-176.
- 이채식. 2013. 대학생청소년의 인권인식에 관한 연구. 글로벌청소년학연구, 제3권, 2호, pp. 5-21.
- 이철원. 2000. 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수용태도 연구. 한국특수체육학회지, 제8권 제2호, pp. 59-71.

- 임윤서·안윤정. 2016. 대학생의 잠재된 차별의식 드러내기-차별대상과 편견 성찰에 대한 질적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제16권 제4호, pp. 103-151.
- 임재홍. 2010. 대학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1권 제2호, pp. 33-62.
- 장기연·이은진·공명자. 2017. 작업치료학 전공 대학생들의 인권감수성 조사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제25권 제3호, pp. 141-152.
- 전미영·이한우. 2017.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충청도 대학을 중심으로, 융합정보논문지. 제7권 제5호, pp..1-13.
- 전병재. 1973. 자아개념이론(自我概念理論)에 관(關)한 고찰(考察).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제29권, pp. 103-131.
- 전준현. 2010. 사회적 지지와 학교환경이 청소년의 인권태도에 미치는 영향-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익중. 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3호, pp. 127-166.
- 정태연·박준성·박은미. 2008. 초·중·고·대학생 간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서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제5권, 제3호, pp. 371-388.
- 조지 카텝 지음. 이태영 옮김. 2012. 인간의 존엄. 서울 : 말글빛남.
- 차현화·김현. 2008. 예비교사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와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제17권 4호, pp. 285-297.
- 채민진. 2009. 장애이해교육이 일반계 고등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정웅. 2015. 청소년 인권의식에 관한 구조분석: 인권존중정도, 인권교육, 차별한 경험, 자존감의 영향관계. 미래청소년학회지, 제12권 제4호, pp. 1-23.
- 최국환. 2003. 한국 대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 연구. 특수교육연구, 제10권 제2호, pp. 72-83.
- 최길순. 2012.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장애인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을 중심으로. 한국보건기초학회지, 제5권 제1호, pp. 30-36.
- 크리스티네 솔추-라이스·공현 지음. 안미라 옮김. 2010. 세상이 보이는 지식 청소년 인권수첩. 서울 : (주)양철북출판사.

- 하경희 · 강병철, 2009. 대학생의 인권태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사회복지 전공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0권 제2호. pp. 188-202.
- 하구치요이치. 송석원 옮김. 2013. 한 단어 사전. 인권. 서울 : 푸른역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7. (한 눈에 보는) 2017 장애인 통계. 조사통계 2017-01.
- 한규석. 2013. <3판>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 학지사.
- 한영숙. 2001. 대학생의 장애인 접촉경험과 장애인 편견간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현숙. 2008. 장애학생에 대한 고등학생의 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안나. 2016. 친인권적 부모 및 학교 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및 성별차이. 학교사회복지, 제35권, pp. 187-212.
- 홍선우 · 김지수 · 현혜진, 2011.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6호, pp. 260-269.
- 홍성윤. 2002. 청소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조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유미. 2005. 농 대학생이 지각하는 대학교수의 장애인식태도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나라렛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동진 · 송혁 · 김사현. 2015. 인권교육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22권 10호, pp. 77-100.
- Allport, G. W. (1935). Attitudes. In C. Murchison (Ed.),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Worcester, MA : Clark University Press, 798-844.
- Antonak, R. F. (1981). "Prediction of attitudes toward disabled persons: a multivariate analysis."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104: 119-123.
- Antonak, R. & Livneh, H. (1988). The measurement of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 methods, psychometrics and scales. spring field, II : C. C. Thomas
- Brownfain, J. (1952). Stability of the self-concept as a dimension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7, 596-606.

- Gilmore, J. V. (1974). *The Productive Personality* New York : Albion.
- Griffin, M. M, Summer A. H, McMillan, E. D, Day, T. L, & Hodapp, R. M. (2012). Attitudes toward including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t college. *Journal of Policy and Practice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9(4), 234-239.
- Harter, S. (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f self-esteem, In P.H Mussen(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275-385.
- Hergenrath, K. C., & Rhodes, S. (2007). Exploring undergraduate student attitudes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 Application of the disability social relationship scale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50(2), 66-75.
- Himmelfarb, S. & Eagly, A. M. (Eds), "Readings in Attitude change".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4.
- Olson, James M, and Mark P. Zanna.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4.1 (1993): 117-154.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HJ : Penguinbooks.
- Smith, T . E. C, Price, B.J, and March, G. E. (1986). 『Madly handicapped children and adults』 , West Publishing Company.
- Wylie, R. C. (1979). *The Self-concept: Vol.2, Theory And Research on Selected Topics*(rev.ed.), Lincoln: UniversityofNebraskaPress.

No. _____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소중한 시간 할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입니다.

여러분이 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무기명으로 전산 처리되어 연구 자료로만 사용되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편안하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5월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지도교수 : 남진열

연구자 : 조윤경

1. 인권의식

1. 다음은 귀하의 인권의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해 주십시오.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형제도는 없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보호자)는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줘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선생님의 체벌은 허용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릴 때 본인 이름을 밝히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악성댓글 같은 사이버 폭력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시위나 집회의 자유는 교통 혼잡이나 소음 발생이 우려될 경우 제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HIV/AIDS(에이즈) 환자로 밝혀진 외국인에 대해 강제출국 조치를 내리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성인과 미성년자는 최저임금이 다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실업은 국가의 책임보다 개인의 책임이 더 크다	①	②	③	④	⑤
9	국민건강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 사항이므로 보건의료는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소득재분배를 위한 (중세)정책은 강력히 실시되어야 한다(중세란 세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내는 것을 의미)	①	②	③	④	⑤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혜택의 확대는 사회양극화를 줄이고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실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국적이 다른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자를 강력히 단속·처벌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성적 소수자(동성애자)는 성적 성향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민간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된 편견과 차별에 의한 것이므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학교 교장이 10대 미혼모 여학생들에게 학교를 자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른 학생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그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반말, 욕설 등 언어폭력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18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II. 자아존중감

2. 다음은 귀하의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정도에 체크(✓)해 주십시오.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III. 장애인 태도

3. 다음은 귀하의 장애인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해 주십시오.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장애를 가진 사람은 도덕적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장애인은 이상하고 비상식적인 성적행동에 몰두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쉽게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⑤
4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장애인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장애인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면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7	장애인에게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 적합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일반학습의 장애아동은 다른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인은 자주 통명스럽게 군다	①	②	③	④	⑤
10	장애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린 아이와 같다	①	②	③	④	⑤
11	장애인에게도 동등한 구직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장애인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과 장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장애인은 생활시설 외부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대부분의 장애인은 걱정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대부분의 장애인은 스스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IV. 배경요인

1. 귀하의 성별에 응답해 주십시오.
① 남___ ② 여___
2. 귀하의 학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학년___ ② 2학년___ ③ 3학년___ ④ 4학년___
3. 귀하의 종교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없음___ ② 천주교___ ③ 기독교___ ④ 불교___ ⑤ 기타()
4. 귀하가 생각하는 가정의 주관적 경제적 수준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하___ ② 중하___ ③ 중___ ④ 중상___ ⑤ 상___
5. 귀하는 인권교육과 관련한 교육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___ ② 없다___
6. 귀하는 ‘장애인 관련’ 교과목이나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___ ② 없다___
7. 귀하는 지금까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___ ② 없다___
8. 귀하의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습니까?
① 있다___ ② 없다___
9. 귀하의 친척 중에 장애인이 있습니까?
① 있다___ ② 없다___
10. 귀하의 친구 중에 장애인이 있습니까?
① 있다___ ② 없다___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Human-rights Awareness and Self-consciousness to Attitude toward the Disabled

Cho Yun-Kyoung

Academic Advisor Nam, Chin-Yeol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nalysis the factor of university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disabled based on human rights awareness and self-consciousness.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mote proper understanding of the disabled and to enhance education in practice.

The research on the impact of the student's human rights awareness and self-consciousness on their attitude toward the disabled was conducted by the 426 students in Jeju Island.

First, the level of each component of the attitude toward the disabled was 'pessimism-stereotype (3.59)', 'optimism-human rights (3.95)', and 'impaired personality (3.36)'. every components had an above average distribution.

Second, female students showed a higher level of attitude toward the disabled than male students for the three sub-components. Also, the subjects who belong to the impaired personality took a favorable view of the disabled if their relative is the one.

Third, the awareness of human rights was indicated in higher degree by female, the subjects who had taken the courses related to the disabled and special education and the subjects whose family member is the disabled.

Fourth, The subjects with high economic standards showed high self-consciousness. and who had experience of education with human rights had higher level of self-consciousness.

Fifth, by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found that human rights and self-consciousness affect positive to attitude toward the disabled about the section of 'pessimism - stereotype' and 'optimism-human rights'. in 'impaired personality', only the human rights have positive effect to attitude toward the disabled.

Based on the above findings, our proposal is as follows.

First, found that human rights and self-consciousness affect positively to attitude toward the disabled significantly. we can say that the class about human rights and personality should be set as critical coursework.

Second, found that female students showed higher level of attitude toward the disabled(impaired personality) significantly. so we can say that there's needs of special educational program about the disabled with considering gender. it would effective that establish the education program which can experience the disability that have motivation to promote the positive attitude to the disabled.

keyword : human right, self-consciousness, attitude toward the disabled.

